

서정주 시어 특질과 시적 효과

—방언과 비속어를 중심으로

장창영(전북대)

〈목 차〉

- | | |
|----------------------|----------------------|
| 1. 들어가는 말 | 4. 생명의 역동성, 원시성의 재발견 |
| 2. 풍자를 통한 관계 해체와 재구성 | 5. 나오는 말 |
| 3. 자아 성찰과 세계에 대한 연민 | |

1. 들어가는 말

이 글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서정시인이자 “탁월한 구도의 시인”이나 “우리 시문학사를 통틀어 가장 탁월한 시인” 등으로 평가받아온¹⁾ 서정주의 시어 사용의 또다른 이면을 살펴봄으로써 서정주 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서정주 시어에서 중요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전라 방언과 비속어를 집중하여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시어 선택이 시세계 형성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시어는 세련되게 조탁한 문학어이거나 고전 취향의 아어(雅語)

1) 서정주에 대한 긍정적인 논의들은 조연현(『서정주론』, 『서정주 연구』, 동화출판공사, 1980), 원형갑(『서정주론』, 『현대문학』, 1967. 1), 천이두(『지옥과 열반』, 『종합에의 의지』, 일지사, 1974), 김재홍(『하늘과 땅의 변증법』, 『월간문학』, 1971. 5), 김화영(『미당 서정주 시에 대하여』, 민음사, 1984), 이남호(『겨레의 말, 겨레의 마음』, 『미당 연구』, 민음사, 1994) 등에서 나타난다.

의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다.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형식주의자들에 이르기까지, 시는 우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언어 경험의 보충적 내용물이며, 또한 계획적으로 깎이고 다듬어지거나, 다채롭고 정치하게 꾸며진 문식(文飾)의 개념이었다. 이는 시인에게 시어가 갖는 의미와 그 위상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대목이다. 그런 점에서 소설과 달리 언어의 함축과 정제를 중요시하는 시 장르에서 비속어(卑俗語)를 사용한다는 것은 다분히 의도성을 지니며 도발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문학에서 비속어는 표준어나 일반 방언에서는 맛보기 어려운 복합적인 감정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시에 비속어가 사용될 경우, 일탈로 인한 카타르시스를 수반하며 시인과 독자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감을 완화 내지 해소하여 작품 몰입도를 높여준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시의 비속어 사용은 개인 감정의 원초적 발산 차원을 넘어서 정상적인 언어 소통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사회를 풍자하거나 해학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적인 시적 장치라 할 수 있다. 격식과 형식을 중시하는 경직된 사회에서 비속어를 통해 사회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철저하게 금기시하고 경계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동안 문학에서 비속어에 대한 논의는 어학 측면에서 주로 다루어졌다. 그나마 대부분 국어 순화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며, 문학이나 교육 차원에서 진행된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다.²⁾ 따라서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시에 나타난 비속어의 의미 다중성에 관한 고찰은 그동안 순화와 세련화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조명되었던 시의 지평을 확장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특히, 서정주는 평생 동안 방언을 시의 기저 언어로 사용하면서 우리 한국현대 시사에서 독특한 시세계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언어적 차원에서 비속어는 경멸적 평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평어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김동언은 비속어를 좁은 의미의 비속어(보통어 중 어감이 좋지 않거나 점잖지 못한 말)과 넓은 의미의 비속어(은어, 결말, 전문

2) 신기상, 「우리말 욕설 연구」, 『국어교육』, 79집, 한국어교육학회, 1992, 윤영춘, 「비속어 실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권선미, 「통신언어 성 욕설의 실태 분석: 10대와 20대 누리꾼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장경희, 「국어 욕설의 본질과 유형」, 『텍스트언어학』, Vol.29,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10, 전은진 외, 「문자 언어에 나타난 청소년 언어 실태 연구」, 『청람어문교육』, Vol.43, 청람어문교육학회, 2011, 강기수·이점식, 「욕의 교육인간학적 기능」, 『석당논총』 50집, 2011.

직업어, 금기어, 지역 방언, 외래어, 구어체, 신어, 고어 중에서 어감이 비속한 말)로 나눈 바 있다.³⁾ 그에 따르면 서정주의 시어 사용은 넓은 의미의 비속어 사용에 해당한다. 서정주가 『질마재 신화』를 비롯한 다수의 시에 도입하고 있는 비속어는 일상에서 즐겨 사용하는 어법이지만 그동안 시에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그 이유는 시 창작과정에서 다른 장르보다 언어 사용의 절제와 조화를 우선시하고, 시어 선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비속어는 인간의 감정을 진솔하게 드러내는 데 효율적인 장치임에도 정작 시 창작에서는 외면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정주는 전라 방언과 비속어를 자신의 시 전면 에 등장시키기 위해 의욕적인 노력을 보여 준 작가라 할 수 있다. 그는 대다수의 시인들이 사용을 꺼리던 방언과 비속어를 시 전면 에 과감하게 등장시킴으로써 잊혀진 우리의 소중한 과거를 복원하고 질마재 사람들의 진솔한 삶의 현장을 생동감 넘치게 재현하고 있다.

서정주의 초기시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강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방언과 비속어들이 자주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그의 초기시를 점철하였던 ‘중’(『自畫像』), ‘배암’(『花蛇』, 『문둥이』(『문둥이』)), ‘병어리’(『壁』)) 등은 사회의 혐오 대상이자 일반인들에게 경멸의 대상이다. 그동안 이들은 문학작품에서 언급 자체가 금기시되어 왔으며, 문학작품으로 형상화하는 데 일정 정도의 제약을 수반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을 시에 소재화하거나 본격적으로 다룬다는 것은 부담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정주는 이들은 자신의 시에 과감하게 끌어들여 시의 전면 에 배치함으로써 한국 현대시 문학사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하였다.⁴⁾ 이것은 ‘질마재’라는 시골을 고향으로 둔 서정주의 태생적인 문제이기도 하였지만, 그보다는 그가 인간의 본성과 내재적인 울림에 귀를 기울인 결과였다.

3) 허재영, 『경멸적 평가어로서의 비속어 형성 과정과 요인 연구』, 『어문론총』 제55호, 한국문학 언어학회, 2011. 12. 122면 재인용.

4) 서정주가 이들 소재를 시에 등장시키는 것은 융의 ‘그림자(Shadow)’ 개념과 연계하여 논의가 가능하다. 융에 의하면 *persona*, *anima*, *animus*, *shadow* 등으로 구성된 ‘원형’은 무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미지를 뜻한다. 이들 중 *shadow*는 의식의 바로 뒷면에 있는 심리현상으로서, 악마와 야만인의 모습을 취한다(Calvin S. Hall, 김형섭 역, 『융 심리학 입문』, 문예출판사, 2004).

이러한 이유에서 서정주가 시 창작과정에서 방언이나 비속어를 자주 사용했다는 사실은 시 창작의 근간이자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에게 방언과 비속어 사용이란 도시에 기반을 둔 다른 시인과 달리 자신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최상의 전략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서정주 시에서 방언과 비속어의 사용은 시적 장치인 동시에 그의 생애 대한 시각과 세계에 대한 의식을 함축하는 의미를 지닌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은 서정주의 시에 등장하는 방언이나 비속어가 저질스럽거나 경박하여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고 오히려 친근감과 푸근함을 떠올리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는 다음의 몇 가지 요인에 의해 가능할 수 있었다.

첫째, 서정주에게 방언과 비속어 사용은 어린 시절부터 체화된 감각의 자연스러운 발산으로 볼 수 있다. 서정주는 어린 나이부터 동아일보 등에 작품을 두고 하였으나, 본격적으로 성가를 발휘하기 시작한 것은 우연한 기회에 두고 했던 『壁』이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이후이다. 하지만 그가 이전까지의 답습하던 언어 모방의 형태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고향의 언어, 즉 방언을 재발견한 이후이다.⁵⁾ 그 결과 서정주의 시 전반에 매끄럽고 깔끔한 도회적인 시어 대신 투박하지만 푸근하고 정이 가는 질그릇의 느낌을 주는 시어들이 전면에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둘째, 서정주는 자신에 대한 가식과 격식을 배제한 무위의 상태에서 작품을 창작하고자 하였다. 이것이 그가 초기시에서 자신을 미화시키지 않고 솔직한 심정과 진솔함을 토로하기 위해 격식언어보다 육성언어를 선호했던 이유이기도 하다.⁶⁾ 그런 점에서 방언이나 비속어는 표준어와 달리 구술표현을 선호했던 서정주와 체질적으로 호흡이 맞는 언어이기도 했다. 결국 서정주는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잘 다룰 수 있는 방언, 즉 그의 표현을 빌자면 ‘민족생활어’⁷⁾, 즉 방언에서 자기 시의 출발점을 모색함으로써 시적 성공을 거둘 수 있

5) “이 實生活語가 늘 통하는 데에라야 김치뿐 아니라 美도 感動도 다 어색할 것 없는 진짜가 있는 것이다. 시의 말이라고 하여 특별나게 他關 높음을 할 필요는 조금도 없는 것이다(서정주, 『시의 언어 I』, 『徐廷柱 文學全集』 2권, 일지사, 1972, 40-41면 참조)”.
6) 이러한 특질은 그의 마지막 시집인 『80소년 떠돌이의 詩』의 ‘책머리’에서도 드러난다. “내 나이가 올해 83세인데다가, 아직도 철이 덜든 소년 그대로고, 또 道도 모자라서 떠돌이 상태 입을 두루 요량해서 그렇게 했다”(서정주, 『80소년 떠돌이의 詩』, 시와시학사, 2000)

었던 것이다.

셋째, 서정주 시에 등장하는 방언과 비속어는 대상에 대하여 따뜻한 시선을 유지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비속어를 통한 일탈과 해학은 서정주가 ‘질마재’라는 세계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식과 일맥 상통한다. 서정주는 근대적 질서와 문명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원적인 한계에 직면해야 했다. 서정주는 이 문제를 공동체의 언어, 즉 민중의 삶에서 배태된 방언을 바탕으로 질마재 구성원들의 삶을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아름다움의 세계로 재현해내면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넷째, 서정주는 평생 동안 적층된 언어의 육화를 통하여 시에 등장하는 화자의 세계를 완전하게 자신의 것으로 소화시켜 작품으로 형상화하였다. 따라서 서정주 시에 등장하는 화자들의 입을 빌어 나오는 방언이나 비속어들은 전혀 생경하지 않고, 각 상황의 특질을 자연스럽고 독특한 분위기로 재현하는데 일조한다. 또한 방언과 비속어들은 시적 화자들에게 개성을 제공함으로써 독자들이 그들을 시의 단순한 배경이나 소재 차원이 아닌 살아 숨쉬는 주체로 각인하도록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다섯째, 서정주는 시에서 방언과 비속어를 해학과 풍자의 방식으로 사용함으로써 전체 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독자들이 서정주의 시를 읽으면서 동네의 내밀한 비밀에 개입하거나 축제에 참여하는 느낌을 갖게 한다. 서정주는 방언과 비속어의 효율적인 구사를 통하여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긴장과 갈등 국면을 효율적으로 조절하고, 진솔하고 사람냄새 나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그려낼 수 있었다. 그 결과 서정주의 시에 등장하는 방언이나 비속어들은 민중들의 역동적인 삶과 생활을 충실하게 재현함으로써 우리 세대를 찬연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2. 풍자를 통한 관계 해체와 재구성

서정주는 초기시에서 “애비는 종이였다”(『自畫像』)와 같이 자신의 치부를

7) 서정주, 「시의 언어 I」, 『徐廷柱 文學全集』 2권, 일지사, 1972, 40면 참조.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자신이 처한 상황을 온몸으로 겨안으려는 치열한 몸부림을 보인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문동이」, 「벽」 등에서 과도할 정도로 대상을 비하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서정주에게 실존의 문제가 생존의 영역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벽」에 나타나듯이, 그의 초기시는 때로 격정적인 몸부림이나 직접적인 감정 노출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그 결과로 초기시에 등장하는 시어에는 자괴적이고 직설적인 언사들이 농후하게 드러난다. 이것은 이미 「自畫像」에서부터 어느 정도 예정되었던 징후였다. 부친을 지칭하는 ‘애비’와 ‘중’이라는 예사롭지 않은 단어는 서정주가 「自畫像」을 쓸 당시의 내면 의식을 침예하게 보여준다. 서정주의 초기시에 주류를 형성했던 ‘直情言語’⁸⁾들은 중기시 이후에는 토속적이고 원시적인 성격을 지닌 방언과 비속어의 자연스러운 도입으로 이어진다.

비속어 방법, 풍자 방법, 증오감의 표현은 인간에게 도사리고 있거나 사회 속에 자리잡고 있는 추(醜)를 인식하고 대응하기 위한 방법이다. 우리 일상에 만연해 있는 추(醜)를 외면한 채 아름다움을 찾아 시를 쓰겠다고 나선다면 그 시는 거짓 아름다움(僞美)에 빠지게 될 것이다. 추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추를 탄력대로 삼지 않고서는 큰 아름다움을 창조해 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큰 아름다움을 위한 속악함은 결코 속악함이 아니다.⁹⁾

위의 인용문에서 정종진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서정주가 시도하는 비속어나 풍자 등은 추함을 통하여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시적 장치이다. 서정주는 비속어를 통해 현재 자신의 심리 상태를 드러내는 한편 자신이 처한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자 한다. 다음 시는 시인의 당시 내면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8) “直情言語 - 수식 없이 바로 사람의 심장을 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말들을 추구하는 것이 당시의 내理想이었던 것이다. 그 결과로서 形容詞 대신에 좋은 언짢은 행동을 표시하는 動詞의集團이 내 詩에 등장하게 되었음은 물론이다.”(서정주, 「1947년 11월의 글, 나의 詩人生活 略傳」, 『徐廷柱 文學全集』 5권, 일지사, 1972, 200면)

9) 정종진, 『한국현대문학 이색강의』, 태학사, 1998, 73-74면.

웃기네.

六·二五 사변과 一四 후퇴의

긴 四年의 피난살이도 피난살이였지만

一九六〇년에 李 박사가 올빼미표 選舉를 하게 두고

中高等 학생들을 光化門 네거리에서 총으로 쏘게 한 건

웃기네.

이 民族 第一元老 이렇게 되신 것

사람 웃기네.

越南에 간 우리 兵丁들은

그곳 아가씨들이 작별 인사를 물으면

‘웃기네’라고 해

헤어질 땐 이 ‘웃기네’를 안녕히 대신으로 쓴다나,

— 「八·一五의 隱語」 부분

「八·一五의 隱語」에는 六·二五 사변과 一四 후퇴, 4·19 혁명, 월남 파병 등 격변의 현대사를 살아온 시인의 단상이 담겨 있다. 시인은 ‘웃기네’라는 냉소적인 단어를 중심으로 해방 이후 파란만장하게 벌어졌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술회한다.

‘웃다’의 사동사인 ‘웃기다’는 주체의 자발적인 의지가 아닌 타의에 의해 일어나는 행동이다. 그 이면에는 이와 같은 상황을 유발했던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과 거부감이 자리잡고 있다. 한때, 민족을 위해 목숨을 내걸었던 이가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다른 이를, 그것도 중·고등학생들에게 총부리를 겨눈다는 사실 자체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웃기네’에는 한때나마 민족의 원로였던 이를 역사의 죄인으로 전락시킨 세태와 그에 따른 연민, 그리고 인생에 대한 회의가 담겨 있다.

시인이 다음으로 주목하는 것은 월남 파병이다. 파병이라는 상황의 특수성 또한 군인들의 자발적인 의지가 아닌 타의에 의해 강제로 진행되는 상황이다. 죽을 수 있는 위험을 내재한 월남행에서 병사들은 그곳 아가씨들과 사랑을 나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이별을 전제로 한 한시적인 사랑이며 불완전한 사

량이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병사들이 작별인사 대신 그곳 아가씨들에게 알려준 ‘웃기네’에는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병사들의 ‘웃기네’에는 자신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진행되는 폭압적인 현실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운명에 대한 항변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병사들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삶의 진지함을 토로하는 대신에 ‘웃기네’와 같은 가벼움으로 대체시킴으로써 자신의 상황을 무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¹⁰⁾

행위 주체	시적 모티브	시어	전개방식	내재 의미	심층 의미
이승만	중고생 사살 지시	웃기네	-상황과 현실의 이질화 -반복 강화 사용 -주제 의미 강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강자와 약자의 일방적인 지배 관계 설정 2. 항거할 수 없는 나약한 소시민의 무기력함 표출 3. 무자비한 권력의 속성에 대한 분노와 비판 4. 시대 영웅의 몰락에 대한 연민 5. 시대 상황을 간파할 수 없는 시인의 숙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지만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순된 상황을 반영 2. 민중이 가혹한 역사의 희생양이 되는 상황의 비참함에 대한 고발
월남 파병 군인	작별 인사	웃기네	-시적 여운 제시 -자기 성찰 심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죽음을 앞둔 자기 신세에 대한 냉소적인 시선 반영 2. 이별의 슬픔을 가볍게 희화화하여 무화시킴 3. 이별의 심각성을 언어 유희 차원으로 대체 4. 상대적 약자를 대하는 강자의 논리가 지배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이상과 현실 사이에 발생하는 괴리에 대한 분노와 자괴감 4. 당하는 자만이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시인 역시 잠재적 피해자에 해당

<시어 ‘웃기네’에 투사된 의미와 심화 양상>

도표의 내재의미와 심층의미에서 드러나듯이, 시인은 강자와 약자로 이분화되는 세계에 주목한다. 시인이 직시한 세계는 시인이 부정하고자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세계이며, 시인 역시 소수자이자 약자에 불과하다는 상황을 각인

10) 장창영, 『서정주 시 연구 - 형상화방식과 의식세계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128면.

시켜줄 뿐이다. 그가 시에서 ‘웃기네’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이유는 그만큼 공허하고 허탈함이 시인의 삶 전반을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인은 보편적인 이상과 현실의 어긋남에서 발생하는 ‘웃기네’를 유발하는 상황에 주목한다. 보편적이고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관계는 외부세력의 개입에 의해 완전히 다르게 변질되어간다. 이 상황에서 위의 시에 나오는 ‘웃기네’라는 시어는 인생의 아이러니를 효과적으로 변주해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인은 ‘웃기네’의 중의적인 특성을 통하여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우리 역사와 현실 상황에 대하여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시선을 효율적으로 담아내고 있다.¹¹⁾

서정주는 이에 그치지 않고 절대적인 존경의 대상으로 추앙받는 부처님이나 하느님까지 조롱의 상대로 전락시킨다. 그가 절대적 대상에 대해 비아냥거리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상식의 일탈을 유발하고자 하는 의도이며, 그의 시도는 충격적일 정도로 대담한 방식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부처님, 부처님, 본 대로 말하소.
저 색시가 오백 원 팁 한 장 때문에
입에 침 바르고 거짓부렁하는 건 아니지?
한 장 먹여 줄까? 말까? 줄까?

“정말이다.
한 장
먹여 주어라.”
부처님도 제법 호박썰 깐다.

— 「추운 겨울에 흰 무명 손수건으로 하는 **奇術**」 부분

이 시에 등장하는 부처님은 더 이상 종교적인 차원에서 논의되는 존경과

11) 감성 차원에서 대상을 접근하려는 시도는 지성을 중시하는 김수영의 풍자와 뚜렷하게 구분된다. 김수영에게 풍자는 ‘악의 교정’이라는 풍자의 일반적인 목적, 혹은 정치에 대한 풍자에 그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현대성에 대한 자각에 기초하여야 하는데, 이 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지성’이다. 그에 따르면 시인은 지성으로 세계를 거쳐서 우리의 현실을 볼 수 있어야 한다(이미순, 「김수영의 시론에서의 ‘풍자’의 의미」, 『국어교육』 123집, 한국어교육학회, 2007, 500면).

경외의 대상이 아니다. 부처님은 화자에게 “본 대로 말하소”처럼 강요와 협박을 받기에 이른다. ‘말하소’, ‘호박쌀’, ‘깁다’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부처님은 평칭이나 하대의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제법’이라는 시어는 시인이 부처님을 인식하는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부처님에 비해 시인은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전체 상황의 주도권을 지니고 있다. 시인에게 부처님은 만민에게 추앙받는 고귀한 존재가 아니라 평범한 존재일 뿐이다. 시인에 의해 부처님은 숭앙받는 절대 존재에서 ‘호박쌀’을 끼는 지극히 평범하고 결합 많은 대상으로 전락하고 만다.

절대적인 권위와 존경을 배제함으로써 부처님은 신도들과의 수직적이고 경직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수평적이고 친근한 관계로 설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서정주가 시에 풍자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절대개념과 같은 경직적인 관계를 해체하여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유연성과 개방성을 확보하고, 운신의 폭을 확대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하느님도 예외가 아니다.

남은 돌을 보는 것은
남은 아이고

남은 아일 보는 것은
남은 하느님

안주 구이도 샌드위치맨도 두루 滿員이어서
외따로 비껴 노는 남은 하느님.

얼쩌영 얼쩌영 남 바둑 두는 거나 기웃거리고 다니는
남은 하느님.

- 「남은 돌」 전문

「남은 돌」의 ‘남은’이라는 시어는 부재 상황을 상징하고 있다. 시인에게 하느님이란 도처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필요한 곳에는 부재하는 결여의 대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식하기 때문에 시인은 “외따로 비껴 노는 남은 하느님”, “남 바둑 두는 거나 기웃거리고 다니는 남은 하느님”과 같

은 결론에 도달하고 만다. “하는 일도 없이 자꾸 이리저리 돌아다니거나 빙빙 돌다”라는 의미의 ‘얼췌거리다’의 어간인 ‘얼췌’은 하느님에 대한 시인의 시각을 극명하게 보여 준다. “얼췌엄 얼췌엄”의 반복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시인에게 ‘하느님’은 존재의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하고 방황하는 존재일 뿐이다.

결국 시인에게 부처님은 호박씨 까는 존재로, 하느님은 “남 바둑 두는 거나 기웃거리고 다니는”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풍자적인 시각을 통하여 서정주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존재들에 대한 경계를 해체하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 설정은 서정주로 하여금 인간에 대한 재발견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3. 자아 성찰과 세계에 대한 연민

문학에서 풍자는 읽는 이로 하여금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반응을 유발¹²⁾하는 점에서 다른 전달 방식에 비해 감정에 직접 호소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풍자를 다룬 작품은, 이를 접하는 독자들에게 작가가 의도하는 바와 그에 따른 반응을 분명히 제시하려는 특성을 갖는다. 즉, 독자들이 작품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비판하고, 스스로 그에 따른 자기 반성을 할 수 있게 만든다. 현대문학에서는 ‘풍자’의 방법으로 ‘아이러니’, ‘알레고리’, ‘해학’, ‘묘사’, ‘이미지나 단어, 그리고 구문 등 문법적 요소의 활용’을 사용하고 있다.¹³⁾ 서정주는 ‘해학’을 통한 풍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에 방언과 비속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서정주의 시는 조롱, 언어 유희, 해학 등 기본적인 풍자의 성격을 드러내면서도 본격적인 풍자로 가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그 수위 또한 언어 유희 차원에 머무르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시인이 강자에 대한 무의식적인 동경과 그들과의 전면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과장에 대해 의식한 결과이다.

12) 풍자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어리석음과 악덕, 부조리한 사회현실을 폭로하고 비판하는 문학 형태이다. 따라서 풍자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적 문학양식이다. 그러나 이런 폭로나 비판 자체가 풍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며, 부조리한 현실을 극복하여 당위적 현실을 지향하는 개선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김준오, 『시론』, 삼지원, 1995, 177-184면 참조)

13) Arthur pollard, 송락현 역, 『諷刺』,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9, 1-84면 참조.

이와 같은 방식은 한시를 통해 당시 시대상과 권력계층을 통렬하게 풍자했던 김삿갓이나 날카로운 세대 풍자로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했던 채만식과는 본질적으로 성향이 다르다. 특히, 서정주는 완곡어법과 우회적인 표현들을 통해 일정 수위를 넘기지 않고 풍자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지극히 개인적이고 소극적인 형태의 풍자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출발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부정으로부터 시작한다.

서정주 시에 드러나는 풍자는 자신의 존재감에 대한 회의에서 비롯한 것으로, 결국 후손에 대한 미안함으로 이어진다.

너와 내가 까 놓은
저 어린것들은 어찌할꼬?

아직 서지도 걷지도 母國語도 바로 모르는
저 깡그리 까 놓은
저 애송이것들은 어찌할꼬?

스무 살부터 일흔 여든까지의
우리 成人의 한 代쯤이야 공거라도 무엇이라도 괜찮다.
그렇지만
너하고 내가 깡 저 어린것들
우리보다도 더 공것이 되면 어찌할꼬?

* 1965년 1월 1일.

- 「新年有感」 부분

한국 사회에서 자손 번식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시인은 출산을 비하하는 ‘까 놓은’ ‘깡’ 등의 표현을 통해 자신의 행위를 폄하한다. 자식을 ‘낭대’라는 표현 대신 ‘까 놓’거나 ‘까 놓은’으로 표현하는 시인의 내면심리에는 자신에 대한 불만과 미안함이 자리잡고 있다. 이처럼 현실에 대해 자신 없음과 불안 심리는 자신에 대한 냉소적이고 경멸어린 시선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후손에 대한 안타까움의 토로로 이어지고 있다. 더군다나 사람들이 희망을 떠올리는 신년 첫날에 이 시를 썼다는 사실은 시인의 불안정하고 비판적인 심

리상태를 극명하게 보여 준다.

자식에 대한 의미 부여를 제거함으로써 시인에게 자손 번식은 인간의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행위에 머물고 만다. ‘까 놓은’ ‘깁’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의 자신에 대한 시인의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시선을 위협하다. 시인은 자신이 자손 번식과 가계에 대한 중압감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한다. 시인이 자손 번식을 ‘깁’과 같은 냉소적인 표현으로 일관되게 대치하는 것은 이러한 중압에 대한 저항과 반발심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에도 시인은 세대 간의 관계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보다도 더 공것이 되면 어찌할꼬?”라는 독백에 담겨 있듯이, 자손에 대한 연민과 애정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풍자의 배경에는 대상과 실체에 대한 객관화와 비판적인 시각이 자리한다. 일단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주체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을 작동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과거 경험, 상식, 그리고 가치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내면의식을 반영하게 된다. 나아가 주체는 이를 외부로 발산하여 표출하게 되는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를 정화시켜 정신건강에 도움¹⁴⁾을 받고자 사용하는 욕도 이와 같은 방식의 하나이다. 이 과정에서 존재에 대한 회의감과 자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게 되는 데 위의 시 『新年有感』에서는 자기 비하와 비판적인 성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신이 ‘까 놓은’ 자손이 ‘공것’이 될 수도 있으리라는 시인의 불안감과 두려움은 “일어선 자리가 바로 저승인들 어떤가?”(『新年有感』)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은 미래에 대한 탈출구가 없는 좌절이나 체념이 아니다. 풍자가 자신에 대한 재발견, 세계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통하여 시인에게 내면의식 강화, 비판 수위 조절, 외부와의 관계 조율, 대사회성 개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인의 우려 섞인 염려와 우려는 그만큼 자손들에 대한 강한 믿음과 기대를 담보하고 있다. ‘어찌할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정 일변도의 어조는 자손에 대한 애정과 기대를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미래에 대한 또 다

14) 강기수·이점식, 『육의 교육인간학적 기능』, 『석당논총』 50집, 동아대 석당학술원, 2012, 562면.

큰 희망으로 읽혀진다. 이와 같은 시선은 그의 또다른 시 『뻘디기』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그것도 우리한테 뻘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국민학교 육학년짜리 손자놈들에게까지 이어서
끌고 끌고 또 끌고 가 달라는 것이야.
우선적으로, 열심히, 열심히, 제에길!

- 『뻘디기』 부분

“우리한테 뻘이라면 또 모르겠지만”에서 나타나듯이, 시인은 자신의 희생이나 고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수할 자세가 되어 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운명이 또다른 자신인 자손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시인의 내면 감정을 직설적으로 토로하는 ‘제에길!’¹⁵⁾은 자손의 생활을 제약하는 데 따른 분노의 표출이자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반사 행동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심정 토로가 개인의 냉소와 자기 비하 차원에 그칠 뿐이며, 현실문제 개선과 같은 적극적인이고 생산적인 단계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서정주의 풍자는 지극히 개인적인 심정 토로에 머무를 뿐이며, 사회 개선이나 역사 의식과는 일정한 거리를 지니는 특성을 갖고 있다.

4. 생명의 역동성, 원시성의 재발견

서정주가 자신의 시에서 즐겨 사용하는 방언과 비속어는 ‘질마재’라는 시인의 고향에서 자연스럽게 배태된 것이다. 서정주 시의 근원을 이루는 속성 중의 하나인 비속어와 직설화법은 질마재가 갖고 있는 원시성과 토속성에 근원을 두고 있다. 시 전편에 전라도 방언을 포진함으로써 서정주 시는 다른 시인들과 뚜렷한 변별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푸근하고 넉넉하며, 해학이 넘치는 전라도방언에 기초한 서정주 시의 비속어는 독자들에게 불쾌감이나 환멸을 불

15) 시인은 또 다른 시에서 “에이 빌어먹을 것!”(『초파일 해프닝』), “헤헤에이, 제밀힐 것!”(『단골 巫堂네 머슴 아이』)과 같은 경멸적인 의미의 비속어를 구사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직설적으로 토로하고 있다.

러일으키는 대신에 경계를 해체시켜 그 세계로의 동화를 유도한다. 그리하여 서정주 시의 방언과 비속어는 등장인물에 생동감을 부여하는 한편 서정주의 시를 읽는 독자들을 상황에 몰입하게 만든다.

주목할 점은 서정주 시에 등장하는 비속어가 기성 권위의 해체에 결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사실이다. 나이나 지위, 권력처럼 기존에 절대권위를 지니고 있던 것들이 해체됨으로써 쌍방의 관계는 새롭게 정립된다.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언어이다. 시인의 민중에 대한 시각이 잘 드러나는 시를 살펴해보도록 하자.

여름 하늘 쏘내기 속의 천둥 번개나 벼락을 많은 질마재 사람들은 언제부터가 무서워하지 않는 버릇이 생겨 있습니다.

여자의 아이 낳는 구멍에 말뚝을 박아서 멀찌감치 내던져 버리는 놈하고 이걸 송내내서 갓 자라는 애기 호박에 말뚝을 박고 다니는 애녀석들만 빼놓고는 인젠 아무도 벼락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이 되어서, 아무리 번개가 요란한 곳은 날에도 샷샷은 내리는 빗 속에 머뭇머뭇처럼 自由로이 들에 뜰게 되었습니다.

(중략)

그렇지만 샷샷을 머뭇머뭇처럼 쓰고 쏘내기의 번갯불 속에 나설 용기가 없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은 하나 둘 셋 넷에서 열까지 그들의 숨소리를 거듭 거듭 되풀이 해서 세며 쏘내기 속의 그 천둥이 멎도록 房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렇게 세는 것이 아니라 “한나, 만나, 淸國, 大國, 열기빗, 참빗, 胡쫘, 말쫘, 병거지, 털렁” 그렇게 세야 하는 것인데, 이 셈법 이것은 李朝 때 胡人놈들이 무지무지하게 쳐들어와서 막 직딱거릴 때 생긴 거라고 해요. “淸國 大國놈 한나 만나서 胡쫘 말쫘에 열기빗 참빗의 巾節이고 무어고 다 소용도 없이 되고, 치사한 權力 병거지만 털렁털렁 지랄이구나” 아마 그쯤 되는 뜻이겠지요. 한나. 만나. 淸國. 大國. 열기빗. 참빗. 胡쫘. 말쫘. 병거지. 털렁…….

— 「분지러 버린 불갈」 부분

위의 시에 등장하는 “아이 낳는 구멍”, ‘호쫘’, ‘말쫘’ 등은 성기를 다루는 우회적인 수법이다. 그는 이러한 어휘들을 질마재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재현해냄으로써 독자들에게 모멸이나 불쾌감 대신에 친근함과 잔잔한

재미까지를 연상하게 한다.

수를 세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호숫’이나 ‘말숫’에는 우리땅을 침범했던 오랑캐에 대한 뿌리 깊은 적개심과 이를 언어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집단 무의식이 깔려 있다.¹⁶⁾ “李朝 때 胡人놈들이 무지무지하게 쳐들어와서 막 직딱거릴 때 생긴” 말이 오랜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내성화되었다는 사실은 구비전승이 지닌 또 다른 위력이다.

풍자의 형상화 방식	아이 낳는 구멍 호숫 말숫 권력 병거지	노골적인 공격 → 우회적인 방법 선호 방언과 구술어법 사용 시에 비속어 도입 자신만의 방식으로 비판
풍자의 변주	자유로이 들에 돌게 셈법 털렁털렁 지랄이구나	자기 검열 극복 사회통념 배제 공격적인 성향 완화 현실 모순 극복 의지 제도권에 대한 저항과 도전정신
풍자의 가치	무서워하지 않는 인젠 아무도 천둥이 몇도록 아마 그쯤	배설의 쾌감 정화 작용 인간에 대한 애정 확인 정서적 동질성 부여 애뜻한 시선 유지 독자들과 교감 형성 가능

〈서정주 시의 풍자 전개 양상과 속성〉

위의 도표에서 나타나듯이, 서정주 시에서 풍자는 다분히 복합적이고 다면

16) 일관된 지배논리가 이성에 기초해 있다면, 반체제적인 저항의 논리는 감성에 좌우된다. 기성체제의 논리를 거부하는 의식 속에는 반논리나 초논리의 직관이 자리잡는데, 그것은 체제의 구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행동을 수반한다. 조선조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구국활동, 구한말의 의병활동, 동학혁명 봉기, 광주학생 의거, 광주항쟁 등 침략세력이나 지배 권력의 압박과 불의에 항거하는 투지는 이성의 논리를 초월하는 직관과 감성의 소산이다. 초논리와 초이성적인 순발력이 아니면 그러한 행동과 실천은 불가능하다. 미륵신앙, 증산도, 원불교 등 기성 종교의 관행을 바꾸거나 종교의 교리체계 변화를 꾀하려는 신흥종교의 발상지가 호남이었던 점을 이러한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격식과 질서에 얽매이지 않고 원칙에 구애받지 않는 문화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진취성과 다양함과 변화를 추구하는 열린 문화, 혹은 단협의 현실을 벗어나려는 동경의 문화 등과 관련이 있다(전정구, 『호남지역 문학작품에 나타난 글쓰기의 특징』, 『현대문학이론연구』 26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05, 272-273면).

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서정주가 즐겨 구사하는 것은 노골적이고 비판적인 시선보다는 유연하고 우회적인 방식이다.

결국, “치사한 權力 병거지만 털렁털렁 지랄”이라는 풍자에는 지배층과 달리 결국 “다 소용도 없이 되”어 희생당할 수밖에 없었던 민중에 대한 연민과 권력에 대한 신랄한 비판정신이 깃들어 있다. ‘권력’을 ‘병거’로, 이어 ‘털렁털렁’, ‘지랄’로 비아냥하면서 위안을 삼을 수밖에 없었던 심리의 기저에는 건강한 민중정서가 자리한다. 억울함에도 외부로 불만을 토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들만의 언어를 무기로 상황을 반전시킴으로써 배설의 쾌감을 만끽하고자 했던 민중 심리가 깔려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서정주 시에 나타나는 방언과 비속어는 민중들의 생활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서정주 시에 강력한 생명력과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마을의 아이들이 길을 빨리 가려고 이 댁 무우밭을 밟아 질러가다가 이 댁 마누라님한테 들키는 때는 그 오줌의 힘이 얼마나 센가를 아이들도 할수없이 알게 되었습니다. — “네 이놈 게 있거라. 저놈을 사타구니에 집어 넣고 더운 오줌을 대가리에다 몽땅 깔기어 놀라!” 그러면 아이들은 썩 새끼들같이 풍기어 달아나면서 그 오줌의 힘이 얼마나 더울까를 똑똑히 잘 알 밖에 없었습니다.

— 『小者 李 생원네 마누라님의 오줌 기운』 부분

김유신의 동생이자 김춘추의 부인이었던 ‘문희’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녀가 언니에게서 샀던 서라벌을 뒤덮은 오줌 꿈은 풍요로움과 상서로움을 상징한다. 하지만 이 시에서 이 생원네 마누라의 오줌은 아이들에게 극심한 공포를 유발하는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 오줌이 아이들의 행위에 대한 징벌적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생원네 마누라님’의 천연덕스러움은 “사타구니에 집어 넣고” “더운 오줌을 대가리에다 몽땅 깔기어”와 같은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아이들이 감당하기에 과다할 정도로 능청스럽다. 이런 상황이기에 ‘사타구니’로 대변되는 여성의 성기는 아이들에게 공포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¹⁷⁾ 더군다나 그녀가 아이들에

17) 여성의 성기를 언급한 비속어가 대개 ‘비하’와 ‘멸취’, ‘모욕’과 같은 언어적 효과를 지니는데 반해, 남성의 성기를 언급한 비속어는 지시어나 강조어의 기능만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전형적인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신체와 성기를 부정시했던 문화적 권력이 언표들

계 협박으로 사용하는 ‘더운 오줌’은 아이들에게 더러움을 넘어서 끔찍함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하지만 이 시는 독자들을 공포에 전율하게 하거나 혐오스러움에 사로잡히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 전반에는 해학과 즐거움이 넘친다. 서정주가 도입하고 있는 이생원 부인의 노골적인 직설 화법이 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동감이 넘치는 장면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서정주 시에 등장하는 방언과 비속어는 질마재 고유의 원시성과 생명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이며, 그 세계에 살아가는 이들의 너그름과 해학, 삶에 대한 관조를 반영한다. 방언과 비속어 사용이 두드러진 또다른 시를 살펴 보도록 하자.

姦通事件이 질마재 마을에 생기는 일은 물론 꿈에 떡 얻어먹기같이 드물었지만 이것이 어찌다가 走馬痰 터지듯이 터지는 날은 먼저 하늘은 아파야만 하였읍니다. 한정없는 땡땡때에 쏘이는 것처럼 하늘은 웨— 하니 쏘여 몸찌리가 나아만 했던 건 사실입니다.

“누구네 마누라허고 누구네 男丁네허고 붙었다네!” 소문만 나는 날은 맨먼저 동네 나팔이란 나팔은 있는 대로 다 나와서 “뚜왈랄랄 뚜왈랄랄” 막 붙어자치고, 팽과리도, 징도, 小鼓도, 북도 모조리 그대로 가만 있진 못하고, 통기쳐 나와 법석을 떨고, 男女老少, 심지어는 강아지 닭들까지 풍겨져 나와 외치고 달리고, 하늘도 아플 밖에는 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픈 하늘을 데불고 家畜 오양간으로 가서 家畜用의 여물을 날라 마을의 우물들에 모조리 뿌려 메꾸었습니다. 그러고는 이 한 해 동안 우물 물을 어느 것도 길어 마시지 못하고, 山골에 들판에 따로 따로 生水 구멍을 찾아서 渴症을 달래어 마실 물을 대어 갔읍니다.

— 「姦通事件과 우물」 전문

위의 시에서 나타나듯이, 질마재 사람들은 개인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성문제를 집단 공동체의 문제로 대치시킨다. 그리하여 질마재 사람들은 집단의 신뢰를 저버리고 질서 유지를 깨뜨린 개인의 죄를 마을 공동체가 함께 단죄

로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윤수연, 「한국 비속어에 드러난 타자화와 권력 담론의 재생산, 『진보평론』 제53호, 2012년 가을호, 259-260면).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통스러운 결과까지 공동으로 감내하고자 한다. 그것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는 마을의 우물을 폐쇄하는 극단적인 행동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그리하여 마을사람들이 우물을 메우는 것은 화를 자초한 행위자에 대한 원망이나 비난의 행위가 아니라 상황을 이렇게까지 방치한 자신들에 대한 통탄과 자성의 몸짓으로 읽혀진다.

여기에서 나아가 질마재 사람들은 성을 문란하게 만들으로써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한 이를 적대시하여 내치기보다는 이들에 대한 연민과 동조화를 보이는 측면에서 포용하고 있다.¹⁸⁾ 이와 같은 공동체 의식의 기저에는 패배자를 몰아세우거나 내치는 대신 무한한 관용과 연민의 정을 보였던 질마재 사람들의 정서가 자리하고 있다.

5. 나오는 말

서정주 시에 나타난 풍자성은 삶에 대한 좌절과 절망에 근원을 두고 있다. 그가 구사하는 방언과 비속어들이 세계에 대한 냉소적인 시선을 바탕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 본다면, 그가 구사하는 풍자는 단순한 공격이나 비판이라기보다는 세상을 이해하고 포용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시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이 불쾌함을 유발할 수 있는 풍자의 속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가 시종일관 따뜻하고 유쾌하게 읽혀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그의 시는 독자들에게 방언과 비속어를 사용하면서 독자들에게 일탈과 해학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고, 나아가 인식 전환과 시야 확대를 꾀하고 있다. 서정주 시에서 방언과 비속어 사용은 시 전체의 흐름을 망치지 않고 오히려 극적인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리하여 서정주 시에 나타나는 방언과 비속어 사용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첫째, 방언과 비속어는 금기에 대한 일탈을 의미한다. 성과 관련하여 질마

18) 동양의 전통에서 ‘풍자’는 상대방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교정하도록 사회의 모순이나 개인의 바르지 못한 점을 비판적으로 나타내고자 했을 뿐 아니라, 착한 일을 서술하여 민풍을 참된 방향으로 교화하고자 하는 풍교론적 의식에서 말미암은 것이었다(지신호, 「풍자의 개념과 그 방법적 특성」, 『한국고전문학연구』 16집, 한국고전문학회, 2007, 337면).

재를 지탱하는 두 가지 힘은 도덕이나 윤리같은 질서 유지에 대한 의지와 금기에 대한 과격과 일탈 지향이다. 비속어는 이 중 금기의 틀을 깨뜨리고 기존의 간섭이나 통제를 이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서정주 시에 나오는 비속어는 억압이나 구속과 같은 강제성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갈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발산이다. 또한 제도권 언어의 한계에서 벗어남으로써 그 영역을 외부로 확장하고 독자적인 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속성을 갖는다.

둘째, 방언과 비속어는 인간의 본능과 감정의 원시성을 바탕으로 한다. 우리의 본능은 각종 외부통제에 의해 억눌려 있으며, 인간들은 본능 회복과 감정 발산을 끊임없이 갈망한다. 그런 점에서 방언과 비속어는 인간의 본능과 가장 밀접한 표현수단이자 감정을 가장 확실하게 토로할 수 있는 전달도구의 하나이다. 비속어가 감정 통제나 절제보다는 본능과 행동에 우선하여 나타나기 때문이다.

셋째, 방언과 비속어는 서정주 시를 지탱하는 생명력의 근원이자 실체이다. 살펴본 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걸쭉한 전라도 사투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방언과 비속어는 질마재에 사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서정주 시에 나오는 질마재 사람들은 토속성 짙은 방언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 시 전체에 생명력과 역동성을 불어 넣고 있다.

넷째, 방언과 비속어는 수직적인 관계나 권위를 해체하고 새로운 차원의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즉, 언급 대상을 동등한 대상이나 비하의 대상으로 전락시킴으로써 거리감을 없애고 오히려 친근함을 유발하는 것이다. 이처럼 방언과 비속어를 통한 대상과의 경계 허물기는 통상적인 선악, 미추, 강자와 약자와 같은 이분법적 사고를 해체하여 통합의 접점에 도달하게 한다.

다섯째, 서정주가 시에 구사하는 구술어법은 시 전체에 토속성과 향토성을 부여하는 한편 현장성과 사실감, 생동감을 확보하게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거침없이 사용하는 원색적인 방언과 비속어는 질마재 사람들의 열린 사고방식과 생활 형태를 반영하며, 독자들에게 재미와 함께 시에 몰입하게 한다.

이처럼 서정주는 방언과 비속어를 통해 계층이나 나이 등에 의해 획일화되는 서열화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삶에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 완충작용을

시도하고 있다. 독자들에게 일탈의 충격과 재미를 동시에 제공하는 이러한 방식은 서열과 계층에 의해 획일화와 결정되는 봉건 사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심리적 엑스타시를 불러일으킨다.

질마재 연작시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서정주는 방언과 비속어를 도입함으로써 자칫 고루하고 진부할 수 있는 소재를 건강하고 역동적인 삶의 영역으로 환원시킬 수 있었다. 서정주의 이와 같은 시도는 대상에 대한 공격이나 비난보다는 애정에 가까우며 파괴가 아닌 창조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결국, 서정주는 방언과 비속어를 효과적으로 시에 도입함으로써 자기 시의 운용폭을 넓히는 한편 새로운 재미와 극적 요소를 불어넣을 수 있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서정주, 『徐廷柱 文學全集』 5권, 일지사, 1972.
_____, 『미당 시전집』 3권, 민음사, 2000.
_____, 『미당 자서전』 2권, 민음사, 2000.
_____, 『80소년 떠돌이의 詩』, 시와시학사, 2000.

2. 연구논저

- 강기수·이점식, 「육의 교육인간학적 기능」, 『석당논총』 50집, 동아대 석당학술원, 2011.
권선미, 「통신언어 성 육설의 실태 분석: 10대와 20대 누리꾼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김준오, 『시론』, 삼지원, 1995.
신기상, 「우리말 육설 연구」, 『국어교육』, 79집, 한국어교육학회, 1992.
윤수연, 「한국 비속어에 드러난 타자화와 권력 담론의 재생산」, 『진보평론』 제53호, 2012년 가을호.
윤영춘, 「비속어 실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이도민, 「육설 표현의 국어교육적 지도 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이미순, 「김수영의 시론에서의 ‘풍자’의 의미」, 『국어교육』 123집, 한국어교육학회, 2007.
장경희, 「국어 육설의 본질과 유형」, 『텍스트언어학』, Vol.29,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10.
장창영, 「서정주 시 연구 - 형상화 방식과 의식세계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전은진 외, 「문자 언어에 나타난 청소년 언어 실태 연구」, 『청람어문교육』, Vol.43, 청람어문교육학회, 2011.
전정구, 「호남지역 문학작품에 나타난 글쓰기의 특징」, 『현대문학이론연구』 26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05.

- 정종진, 『한국현대문학 이색강의』, 태학사, 1998.
- 지신호, 『풍자의 개념과 그 방법적 특성』, 『한국고전연구』 16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7.
- 허재영, 『경멸적 평가어로서의 비속어 형성 과정과 요인 연구』, 『어문론총』 제55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1. 12.
- Arthur pollard, 송락헌 역, 『諷刺』,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9.
- Hall, Calvin S, 김형섭 역, 『용 심리학 입문』, 문예출판사, 2004.
- W. J. Ong, 이기우·임명진 옮김,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1995.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서정주 시에 나타난 비속어를 중심으로 풍자와 해학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는 방언을 기반으로 비속어를 즐겨 사용함으로써 민중성과 향토성이 강한 서정시를 완성할 수 있었다.

그의 시에 나타나는 풍자는 가식적이지 않은 진솔함을 바탕으로 삶의 건강성을 보여 준다. 그가 비속어를 사용하는 방식은 성이나 사회제도와 같은 억압 요소에 대한 우회적인 표현이다. 그의 비판은 공격적이지 않고 우회적인 형태를 통해 웃음을 가능하게 하는 특징을 보인다. 그의 풍자표현에서 주목할 점은 강한 자의식과 함께 자기 비하와 냉소적인 시선이 함께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절망적이거나 자기 소외로 이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은 절망적이거나 자기 소외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는 이를 영원의식과 신라에 몰입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었다. 그의 풍자가 건강한 시선으로 읽히는 이유는 삶의 여유와 관조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서정주 시에서 풍자는 본격적인 풍자로까지는 진행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성장 환경으로부터 비롯한 강자에 대한 동경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가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비속어를 통한 풍자를 사용함으로써 서정주 시는 우리에게 친근함의 미덕과 삶에 대한 긍정성을 제공한다.

주제어 : 방언, 비속어, 풍자, 유머, 질마제, 생명력.

【Abstracts】

A character of the poetic language and poetic effect in Seo Jeongju' s poems

—Around the dialect and slang

Jang, Chang-Young

In the paper, the purport of the satire and humor tried to be looked into with the slang and dialect shown up in Seo Jeongju's poetry. Seo Jeongju could complete the lyric poetry that full of democratic and local color by using the slang based on the dialect

The satire shown up in his poetry shows the healthiness of the life based on frankness. The way that he uses the slang is the indirect expression about the elements of suppression like sex or social system. His criticism shows the feature making the smile possible in inoffensive and indirect ways.

To be paid attention at his expression of satire is the fact that the self-depracation and cynical eyes are shown up with the strong self-consciousness together. However, this is not desperate, and this does not lead to a sense of self-alienation. He could overcome these by immersing in the circle consciousness and Shilla dynasty..

The reason we read his satire with healthy eyes is to maintain the surplus of the life and intuitive attitude. As to the problem of Seo Jeongju's poetry, the satire shows the limit that does not progress to a real satire.

It seems to be a result of adoration about a strong man and defense mechanism for protecting himself.

His poetry provide us the virtue of familiarity and positive thinking about the life by using the satire through the slang.

Key words : dialect, slang, satire, humor, jilmajae, vitality

이 논문은 2012년 12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3년 2월 4일에 심사 완료되어 2월 15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